

“N수생보다 불리” 코로나19에 우는 고3

정시 확대에 반수생 느는데 학교 분위기 어수선 모의고사·수시·수능 등 학사 일정 빨리 나와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된 고3 수험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개학이 늦춰져 학습 공백이 커졌을 뿐 아니라 학생부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의고사와 대입 수능 등 학사일정도 확실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정시 확대로 대입구조가 전환되면서 N수생(재수생 이상 수험생)이 대거 유입되고 온라인 강의 등 대학 생활에 실감한 반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번 대입에서 N수생에 비해 현 고3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대입, 고3 수험생이 N수생보다 ‘불리’ 전망=대체로 학년 초는 고3 수험생의 집중도가 가장 높을 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으로 여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N수생은 학원 등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로선 예정대로 개학을 해도 학생들은 한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고3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로 학사일정이 뒤흔들리면서 고3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커졌다. 수업 일수·시수가 줄었지만, 수업 진도는 그대로라 짧은 시간에 학습해야 할 양이 늘었다. 또 3월 모의평가가 4월로 미뤄지면서 모의평가와 중간고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고, 수시모집에서 스펙으로 활용되는 교과 외 활동을 수행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보통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부족한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올해는 그럴 시간이 부족해졌다”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학 후에도 고3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시·수능 일정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혼선 없어’=재수생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진 수시도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입시전문가들 의견이다. 수시시수 단축으로 활동 내용은 줄었는데, 교사들이 기재해야 할 양이 증가하면서 고3의 학생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교사들이 학생부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써줘야 해 이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개학 연기로 중간고사 일정이 밀리면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마감해야 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입 수시에서 졸업생의 지원율은 보통 20% 내외이고, 합격률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학생의 학생부가 부실해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학이 줄어든 것도 재학생에게 불리한 요소다. 고3은 보통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거나 대학별 고사에 대비한다. 학원에서 탐구과목 등 단기 완성들을

면서 수능에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올해는 방학이 2주로 짧아 이를 준비하거나 사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에 회의를 느껴 재수를 고민하는 대학생이 증가하는 것도 변수다. 수험생들이 주로 찾는 대입 정보 카페 ‘수만휘’에는 반수를 고민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진학 담당 교사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평상시라면 3월 모의평가 성적을 두고 진로상담을 할 시기지만, 개학 연기로 진학지도가 어려워졌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하루라도 빨리 학사 일정이 나와야 지금이라도 수능 대비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학년 내신 성적과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정시와 수시 중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개학과 모의평가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게 불가능해졌다”며 “고3 학생들 사이에서는 벌써 ‘올해는 재수각’(재수할 느낌)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여대 ‘KWU 온라인 마음 약국’ 운영



코로나 블루 대응 시스템 전문상담사 7명 전문상담

광주여대(총장 이선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현상의 심리적 방역을 돕기 위해 ‘코로나 블루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장기화된 개학 연기로 인해 온라인 학습으로 첫 학기를 맞이하게 된 신입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온

라인 마음약국’을 운영한다.

온라인 마음약국은 1단계 신입생 대상 온라인 심리검사 전수조사, 2단계 심리적 어려움 조기발견, 3단계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학생상담센터에서는 7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더불어 한국상담학회, 자살예방센터, 건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유망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학부(과) 특성화 및 교육역량 향상을 위해 ‘2020학년도 자율혁신학교’를 재선정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진실적과 운영계획, 정량지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3개 특성화 학부(과)이며, 선도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선도형에는 각 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도형 학부(과)에는 5천여만 원, 일반형에는 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선도형에는 대학 특성화 분야, 지역주력산업 연계 및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 관련 분야 운영평가를 통해 국제물류무역학과를 비롯해 부티미용학과, 세무경영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상담복지교육학과 등 5개 학부(과)가 선정됐다.

일반형은 간호학과, 문예창작과, 보건행정학과, 사이버보안경찰학과, 사회복지학부, 식품영양학과, 패션주얼리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8개 학부(과)이다.

선도형 학부(과)는 5천여만 원, 일반형에는 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신입생 외국어 특별과정 ‘동신 클래스’ 큰 호응

170명 신청·등록... 수준별 수업 토익 600점 미달 땀 무료 재수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대학들의 대면 수업이 전면 연기된 가운데 신입생들을 위한 동신대학교의 외국어 특별과정 ‘동신 클래스’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동신대학교(총장 최인)에 따르면 국제교육원이 신입생들의 공인 어학성적 취득과 실용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어학 프로그램 ‘동신 클래스’가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진> 현재까지 신입생 170명이 신청·등록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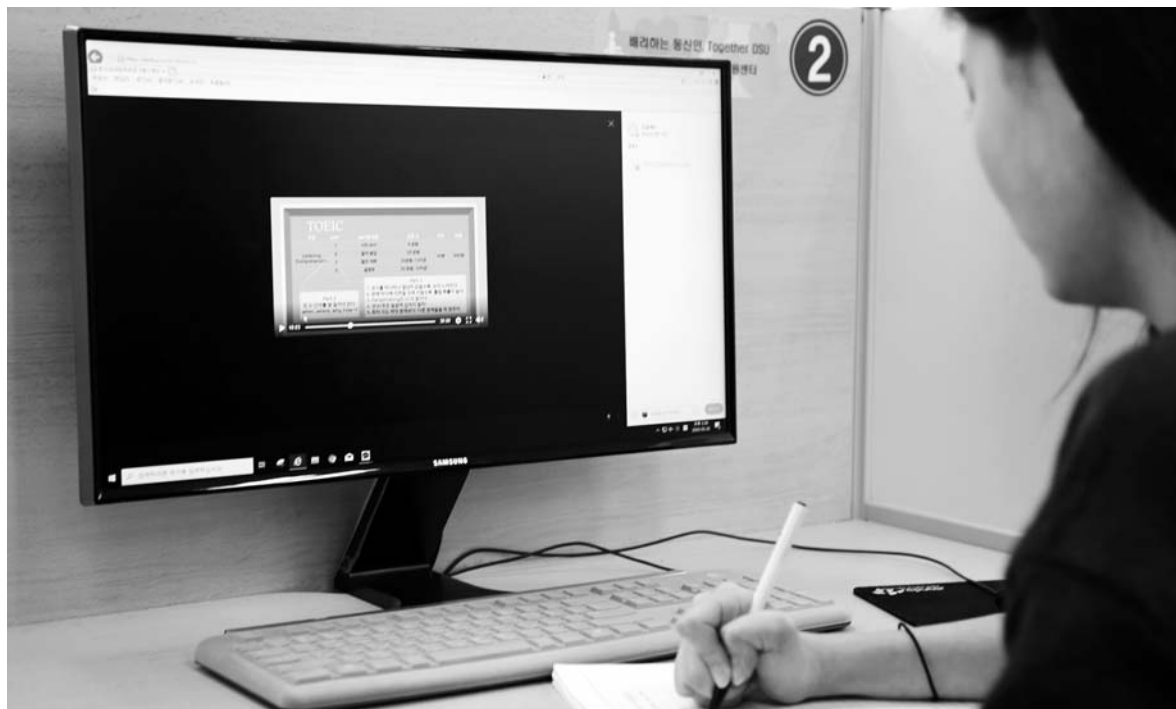
온라인 평가와 학습상담을 거친 이들은 영어 실력에 따라 2개 학급으로 나뉘며, 유명 토익 강사의 수준별 맞춤형 강의를 밴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

당초 지난 2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개강이 연기되고 비대면 수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4월3일까지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대체됐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강의 후 당일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형식으로 출석 확인이 이뤄지며, 화요일과 목요일 올라오는 녹화 방송을 통해 복습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대면 수업은 동신대의 전체 대면 수업이 시작되는 4월6일부터 학교 내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동신 클래스’ 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 매주 월·목·



일, 하루 세 차례 진행되며 금요일에는 문법 특강이 마련된다. 모의고사를 통해 매월 자신의 영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업 내용에 대한 개별지도와 성적분석 강사의 멘토링을 1대1로 받는다.

방학 동안에는 토익 집중반, 말하기 시험 대비반,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집중 과정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유명 온라인 교육브랜드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점수보장제도를 도입해 토익

600점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무료 재수강이 가능하다.

장학금과 해외어학연수 혜택도 풍성하다. 주 4일 중 2일만 수강할 경우 출석 100%로 인정받아, 학기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을 선발해 해외어학연수 장학금, 글로벌 엘리트 장학금을 지급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BI센터 ‘착한임대인 운동’... 창업보육료 20% 인하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내 입주 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동강대 BI센터는 오는 4월1일부터 두달간 산학협력관과 교수연구동에 입주한 25개 기업들의 창업보육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동강대는 5월 이후에도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창업보육료 인하를 지속할 방침이다.

박경우 BI센터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창업초기 업체들이 자금 걱정을 덜고 창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제15회 빛고을독서마라톤’ 11월27일까지 8개월 운영

광주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미라)이 초·중·고등학생 이상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빛고을독서마라톤’을 진행한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나눔과 성장의 독서문화 확산·조성을 위해 마련된 범시민 독서운동인 ‘제15회 빛고을독서마라톤’을 11월27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 1쪽 당 마라톤 1m로 환산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는 빛고을독서마라톤은 ▲거북이(3km) ▲악어(5km) ▲토끼(10km) ▲타조(15km) ▲사자(21.097km) ▲호랑이(31,646km) ▲월계관(42,195km) 등 총 7구간을 운영한다.

독서일지 누적 기록에 따라 최종 완주 구간이 결정된다.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완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